## 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 열림에 대하여 -괴테의 미완성 드라마 '마호메트'

겨우 한 장면, '들판. 별이 가득한 하늘' 부분이 쓰여 남아 있는 괴테의 드라마 '마호메트'는 시 한 편에다 무대 설명과도 같은 앞부분이 더해진 짧은 미완성 단편(斷片)이다.

무한한 자연 속에서 무한히 자신을 열며 특별한 소명을 느끼는 청년 마호메트 '무하마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마호메트의 사위 알리와 딸 파티마가 노래 하나를 번갈아가며 부른다. 그 노래가 별도로 익명으로 발표되어 나중에 질풍노도기 괴테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게 된 시 '마호메트의 노래'이다.

마호메트의 노래라지만 제목을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물의 묘사일 뿐 아무런 사람의 자취가 없다. 그러나 맑은 샘에서 발원하여 작은 개울들이 모여 점점 넓혀지며 주변을 비옥하게 하며 흐르다가 마침내 대양으로 흘러드는 도도한 강물을 담은 이 노래는, 큰 생애를 암시하는 비유로 가득하다. "걸음마다" 꽃들이 밟히는 게 아니라 "피어나고", 도시가 생겨난다. 그런 큰 생애를 더 상세히 산문으로 그려보이려 한 시도가 드라마 '마호메트'이다.

스물두 살의 괴테는 헤르더에게(1772년 7월 10일) 썼다. "나는 코란 속의 모세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제 좁은 가슴속에 공간을 만들어주소서." 드라마 '마호메트'의 시작부분은 이 문장의 부연과도 같다. 후에 종교를 창시하는 큰 인물이 되는 한 청년에 대한 청년 괴테의 관심은 스스로 코란을 읽으며, 몇몇 장은 직접 번역도 해보면서 시작되어 오래 지속되었다. 남아있는 드라마 첫머리에서 마호메트가 느끼는 온 누리에 깃든 신의 편재(遍在)는 괴테 자신이 번역해본 코란의 6장에 기반하고 있다.

무신론자조차 용납이 안 되던 시대의 기독 세계 한가운데서 괴테가 이슬람의 창시자에 대해 가졌던 관심 자체가 놀랍기만 하다. 더구나 편린에 그친 이 작품은 괴테의 오랜 관심의 단초일 뿐이다.

노래든 드라마 시도이든 일차적으로는 종교까지 창시하는 한 큰 인물에 대한 관심이겠고, 이슬람에 대한 호기심이겠고, 무엇보다 찾아보기 드문 열린 마음의 증거이다. 당시 유럽에서 마호메트를 다룬다는 건 생각하기도 어려웠고 드물게 작품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은 볼테르의 '마호메트'처럼 광신과 독신으로 개인과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압제자였다. 괴테의 '마호메트'가 미완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드라마는 미완성에 그쳤어도 품었던 관심은 만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40여년 후 주옥 같은 시편들과 방대한 오리엔트론을 담아 서구인들에게 오리엔트를 열어주는'서.동 시집 West-stlicher Divan'(초판 1819, 증보판 1825)이라는 대작으로 결실된다. 그것은 세계문학의 시대를 활짝 연 책이기도 하다.(세계문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괴테로 거슬러 오른다.)

만년에 괴테는 종교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자연과학자로서는 범신론자, 시인으로서는 다신론자, 개인적으로는 유일신론자"라고 정리해 놓았다. 자연과학자로서 모든 자연 속에 신이 있다는 믿음으로 연구했고, 시인으로서는 "이슬람은 신에의 귀의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슬람 안에서 살고 죽는다"고 공언할 정도로 열려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독실한 유일신론자였다. 종교문제에서도 이럴진데 다른 건 얼마나 더 마음 열고 바라보았을지 가늠도 어렵다.

분명한 것은 종교라는 엄중한 사안에서까지 이렇듯 자신을 열 수 있었던 청년에게서 훗날의 큰 학자, 큰 문인, 통합적 인물, 괴테가 커나왔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세계는 참 아름답다.

꼭 그렇게까지야 아니더라도 우리도 조금씩만 더 마음을 열수 있다면 자신과 세상이 얼마나 더 평화로울까를 생각하게 된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 의료칼럼

# 결손치와 과잉치의 치료

정서린
조선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부교수

치아는 음식을 씹고 발음을 돕는 기능뿐 아니라 얼굴의 조화를 이루며 심미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부족하기도 하고(결손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치아를 더 많이 갖고 있기도 한다(과잉치). 치아 개수의 이상은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뿐 아니라 전체 치열과 맞물림 및 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흔히 발견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복잡한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 결손치와 과잉치가 있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교정치료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결손치이다. 결손치는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발육하지 못하거나 외상이나 충치 치료 등으로 치아를 잃으면서 발생한다. 사랑니에서 매우 흔하고 작은 어금니나 앞니에서 자주 나타난다. 치아가 있어야할 자리에 없으면 옆 치아가 빈 공간으로 기울어지면서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미소에서 빈자리가 보여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로 치과에 오는 경우는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심미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거나 발음이 새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옆 치아를 이동시켜 빈자리를 닫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빈자리를 남겨 두었다가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수복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경우는 환자의 골격적인 형태나 치아를 배열할 공간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잉치는 정상 개수보다 치아가 더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윗앞니 사이에 생기는 '정중 과잉치'이다. 겉으로는 작은 돌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구치가 제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막거나 치아 배열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앞니가 비뚤어지거나 벌어져 심미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주로 치과에 오는 경우는 영구치가 나와야 할 시기에 나오지 않아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잉치가 정상 치아의 맹출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과잉치를 제거해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맹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때 치아 배열이 이미 틀어졌다면 교정치료를 함께 진행해 벌어진 치아를 모으거나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히 정리해 줄 수 있다.

결손치와 과잉치는 정반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치아 배열과 맞물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결손치는 치아가 없는 공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환자의 안모와 공간부족 여부에 따라 공간을 닫아주는 경우에는 성장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보철을 통해 수복할 경우에는 보철 치료가 가능한 성장이 완료된 시기에 맞추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과잉치는 불필요한 치아를 언제 제거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 두 경우 모두 단순히 치아의 개수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전체 치열, 턱뼈 발달, 저작 기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국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손치와 과잉치는 비교적 흔한 이상이지만 방치하면 저작 기능 저하, 발음 장애, 심미적 문제, 턱관절 불편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성장기에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예후를 좌우한다. "조금 더 크면 하자" 하고 미루기보다는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한 번은 치과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치아 수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향후 치료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기 고

# 낡은 교육과정 뜯어 고쳐야 청년 일자리 나온다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구직을 포기한 청년 중 41.3%가 대졸자다. 2024년에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 42만1000명 중 대졸 이상 청년이 17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이 중단됐던 코로나 때(41.1%)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청년의 취업포기 증가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청년 취업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 문제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최근 6년 동안 한국 청년(만 15~29세) 91만명이 줄어들었음을 감안한다면 청년 구직 포기 43%라는 수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기업의 경력직 채용공고 비율은 82.0%에 달했다.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두 뽑겠다는 채용 공고는 15.4%, 신입 직원만 뽑겠다는 공고는 2.6%에 불과했다. 기업은 당장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업의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도 청년 취업률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 일자리는 2022년 18만2000명에서 2023년 9만명, 2024년 5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경제인연합회는 5년 동안 '쉬었음' 청년으로 생긴 경제적 비용이 44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청년 퇴사율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청년 퇴사율은 2019년 12.5%에서 2023년 22.5%로 급등했다.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율은 무려 56.4%에 달했다. 퇴사 사유로는 업무 기대와 현실의 차이(45.7%), 직무 적성 불일치(41.4%)가 가장 컸다. 이쯤이면 청년 취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감이 잡힌다.

20대~30대의 특징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취업을 바라보는 심리적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들은 과거 세대보다 자아실현 욕구가 훨씬 강하다. 일(직업)을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 자기실현의 도구로 인식한다.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청년계층은 안전욕구보다 자아실현 욕구를 더 강하게 추구한다. 자기표현이나 성취감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들은 퇴사와 이직을 '피로 사회'에서 살아남는 생존 방식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창업-취업 장벽 낮출 때'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담지 못했다. 역대 정부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대졸 실업자는 증가했다. 양질의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외쳤지만 대부분 이벤트에 그쳤다. 정부가 외친 '맞춤형 인재양성'은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사회문제로 번졌다.

사회 양극화는 청년 취업률을 결정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상·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억원을 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적성과 재능을 살린 충분한 현장경험과 실습,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케케묵은 교육과정과 낡은 실험장비, 부족한 현장경험, 사회와 고립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을 설계하고 안내하는 교육으로 혁신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가장 시급한 대안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 기업이 손잡고 융합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입시구조를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자아실현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AI·데이터 전문가를 비롯한 로봇공학, 기후위기와 지구환경, 사이버 보안 전문가, 노인 케어 등 미래 유망 직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해야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농생명·바이오·에너지·관광 분야를 묶어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기업-지자체가 손을 잡아야 가능해진다. 현장에 맞는 융합정책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원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이 가능해진다.

## 社 說

# 위장전입 확인 쓰레기소각장 사업 철저 수사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돼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광주광산경찰은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소각장 후보지로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이 선정되도록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해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인데 충격적이다.

광주시는 삼거동 후보지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88세대 중 48세대(54.5%)가 동의해 어렵게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해오다 위장전입이 확인되면서 사업 정당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경찰은 후보지 인근 광주시립요양병원 일가가 직원들을 동원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비대위 측은 광주시와 병원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광주시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각장 없는 광역자치단체인데 203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불가능해 그 전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 만약 건립이 안되면 매일 500t이 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된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막혀 지난해 12월 3차 공모끝에 가까스로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가 복병을 만나게 됐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정공법으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장전입을 누가 사주했는지, 광주시와 시립요양병원 간 공모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님비사업 선정 과정에서 조급증이 빚은 대표 사례로 교훈을 삼아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라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힘들더라도 광주시와 주민들이 접점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 현금보관 창고된 지자체 금고 운용 공개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맡기 위한 금융기관의 치열한 금고 쟁탈전은 익히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지자체 예산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수신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고 심지어 기준금리보다 낮은 곳이 많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평균 이자율은 2.87% 였다. 광주·전남 지자체 14곳은 전국 평균 이자율보다 낮았고 특히 광주 동구, 보성군, 영암군, 무안군, 화순군 등 5곳은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2.5%) 보다도 낮았다.

이자율이 1.45%로 가장 낮은 보성군은 금융기관에 3480억원(잔액 기준)을 맡겨 놓고도 이자 수입은 연간 50억 5800만원에 그쳤다. 지자체 금고 담당자들은 매일 금고 잔액을 더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금고 이자율은 공개된 것과 다르다고 해명하지만 과연 자신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운용했을까 싶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지자체들이 금고를 국민의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로 여기지 않고 단순한 현금보관 창고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금고 운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다.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 無等鼓

### 박정민 효과

토크쇼 사회자 오프라 윈프리가 북클럽에서 소개한 책은 즉각 베스트셀러에 올라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독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의 독서 리스트도 화제였다. 퇴임 후 경남 양산에 평산책방을 연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 목록은 책 판매량에 영향을 미쳤다.

연예인들이 언급한 책은 언제나 화제다. '아이브'의 장원영이 읽은 '초역 부처의 말', 2015년 출간작이지만 홍진경이 '인생 책'으로 꼽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등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요즘 베스트셀러 1위인 성해나의 '혼모노' 띠지에 적힌 추천사는 짧지만 강렬하다. "넷플릭스 왜 보냐. 성해나 책 보면 되는데". 추천사를 쓴 이는 '동주', '밀수' 등에 출연한 배우 박정민이다. 그에 따르면 이번 소설집은 "몰입의 파티이자, 한 사람으로 한 세상을 품는 글들"이기도 하다. 이기호의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에 추천사를 쓰고 북토크 사회자로도 나선 그는 주인공 개 '이시봉'의 이야기를 접하고 전국의 반려인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박정민의 행보는 여타 연예인과는 좀 다르다. 지인과 책방 '책과 밤, 낮'을 운영하기도 했던 그는 출판사 '무제' 대표다. 최근 펴낸 김금희의 '첫 여름, 완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이 먼저 나온 후 종이책으로 출간돼 화제가 됐다.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그는 영화관을 대관해 화면해설 상영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 제작에 목소리를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개성 넘치는 글쟁이기도 하다. 첫 책 '쓸만한 인간'(상상출판)을 읽었을 때 유머와 따뜻함이 담긴 만만치 않은 솜씨에 '글 잘 쓰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직접 구입한 수십여 권의 책 소개 영상을 보면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 온 사람의 내공을 느낄 수 있어 믿음이 간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북튜버 김겨울, 민음사 TV 추천 도서 역시 책에 관심 있는 이들이 신뢰하는 길라잡이다. 누군가의 추천작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책에 '진심'인 이들이 권하는 책을 나침반 삼아 독서의 바다에 빠져보는 것도 책과 친해지는 방법임은 분명하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